

그러다가 1738년, 라 부르도네 씨●가 이 섬에 오고 3년이 지난 뒤에서야 마침내 라 투르 부인은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모 쪽에서 온 편지를 받아 자기한테 다시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때만큼은 부인도 옷차림이 추레해 보일까 하는 걱정 따윈 접어두고 포르루이로 달려갔으니, 엄마로서의 기쁨이란 체면치레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게 해주었던 게지. 라 부르도네 씨는 과연 그제야 부인의 이모님한테서 온 편지를 전해줬다네. 그분께서 제 질녀에게 한다는 말이, 모험가니 탕아니 하는 인간과 결혼했으니 그 신세가 당연하다, 정염에는 징벌이 따르게 마련이니 남편의 때 이른 죽음은 신이 내린 정당한 응징이다, 프랑스에 있으면서 가족에 망신을 주느니 섬으로 가버리길 차라리 백번 잘했다, 여하튼 게으른 치들만 아니라면 모두가 큰돈을 벌어 온다는 좋은 나라에 있는 셈이다, 하는 것이었네. 그렇게 부인을 책망한 뒤에는 자화자찬으로 편지를 끝맺었다지. 자기는 대개 결혼에 뒤따르게 마련인 잠담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언제까지고 결혼하기를 거부해왔다고 말이야. 진실은 그 이모라는 분 마음이 야망으로 가득차서, 훌륭한 가문 출신 남자가 아니면 결혼은 거들떠보지도 않

---

● [원주] 산꼭대기가 유방처럼 봉긋하게 솟은 모습을 하고 있어 세상 각 언어마다 이를 이름으로 삼는 산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실로 진정한 젖가슴이니, 이는 그들로부터 비롯하여 수많은 강과 개울이 흐르고, 그 강과 개울이 땅 위에 풍요를 퍼뜨리는 까닭이다. 이러한 산들은 주요 하천의 물줄기를 이루는 근원이며, 산 중앙에서 마치 젖꼭지처럼 돌출되어 있는 바위 봉우리 주변으로 끊임없이 구름을 끌어당김으로써 하천에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한결같다. 우리는 이전까지의 연구를 통해 경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이러한 신견지명을 밝힌 바 있다.